정규앨범 '더 스토리'로 돌아온 가수 강다니엘

"솔로 첫 정규앨범…가수 '로망' 이뤘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모습 담아 처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 5년만에 다시 비보잉 계획도 멍 많이 들지만 팬 환호에 Go!"

"정규는 가수로서 내고 싶었던 '로망' 같은 거죠."

이제는 '그룹 워너원의 센터'라는 타이틀도 어색해졌다. 솔로 가수로 첫발을 내딛고 연기 분야까지 확장해나가던 강다니엘(26)이 어느새 본업에 갈증을 느껴서인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왔다. 24일 발표한 '더 스토리'(The Story)는 2017년 8월 그룹 워너원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들인 지 4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첫 정규앨범이다.

강다니엘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앨범은 내가 이때까지 내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스스로 표현한 앨범"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한 '컬러' 연작 음반을 발표해왔다.

"지난해 '옐로' 앨범을 통해서는 내면의 다크한 부분을 드러냈고, 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다보니 활동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즐겁게 해도 어려웠죠. 아무 생각 없이 무대를 했던 곡이 뭐였는지 생각해보니 2020년 '투유'(2U)라는 곡이더라고요."

가수 강다니엘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더 스토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그는 이 곡을 떠올려 스태프와 댄서 등에게 조언을 받고 자신에게 밝은 템포의 곡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가장 나다운 게 솔직한 매력이고, 음악적 색깔이 아닐까" 판단해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업사이드 다운'(Upside Down)을 비롯해 가수 제시가 피처링한 '돈트 텔'(Don't Tell) 등 총 10곡이 담겼다. 모두 밝고 경쾌한 리듬이 돋보인다.

"이번 앨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없어요. 저에게 스스로 주는 상패 같은 느낌이죠. 만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처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모든 곡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타이틀곡은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아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나만의 색깔을 넣었죠."

강다니엘의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꼭꼭 숨겨뒀던 비보잉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그가 비보잉을 꺼낸 건 2017년 '프로듀스 101' 이후 처음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 이후 비보잉을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음악방송 무대에서 오랜만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쳐서 어느 순간부터 (비보잉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멍도 많이 들지만 팬들이 좋아하니 저도 더 뿌듯해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블랙핑크' 美 매체 롤링스톤 표지 장식 "팝의 초신성"…걸그룹으로 3번째 소개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음악 매체 롤링스톤 표지를 장식했다. 롤링스톤은 24일(한국시간) 블랙핑크를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이라며 '팝의 초신성'(Pop Supernova)으로 소개했다. 걸그룹이 롤링스톤의 표지모델로 선정된 건 영국 스파이스걸스, 미국 데스티니스차일드에 이어 세 번째다. 매체는 이어 "이들의 엄청난 성공은 한국 문화 산업의 세계적인 인기를 가리키는 한류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멤버 제니는 인터뷰를 통해 "블랙핑크의 힘합은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라고 밝혔다.

김구라·그리, 이혼 극복 경험 나눈다

티빙 오리지널 '결혼과 이혼사이' 동반출연

래퍼 그리와 방송인 김구라
사진제공 | 티빙

이혼 경력이 있는 방송인 김구라(김현동·52)와 그의 아들인 래퍼 그리(김동현·24)가 이혼 가정의 아픔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눈다. 이혼 후에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부자는 이혼 소재를 내세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결혼과 이혼 사이'에 동반 출연한다. 김구라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언급해왔으나 이혼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처음이다. 그는 1997년 결혼한 전 아내와 2015년 이혼해 2020년 12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재 아내 사이에서 늦둥이 딸도 얻었다.

두 사람은 24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매일 싸우며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이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춘기 시절 함께 아픔을 헤쳐 나가준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아들도 콘텐츠를 통해 부모의 이혼, 새어머니와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과정 등을 풀어내고 있다. 출연 부부의 자녀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여고생 이어 몸치까지 등장…엠넷 '댄스 무대' 다양해진다

남성 댄서 선발 '비 엠비셔스' 첫방
6월엔 몸치들 주연 '뚝딱이의 역습'
여름엔 남성 댄서들 '스맨파' 출격

"제2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향해!"

지난해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로 화제를 모았던 엠넷이 댄스 소재 확장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댄스 경연 포맷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세운 프로그램들을 연말까지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1월 여고생 크루들의 대결을 그린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스걸파)에 이어 24일 남성 댄스 크루 멤버를 선발하는 '비 엠비셔스'(Be Mbitious)가 첫 방송했다. '몸치'들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담은 '뚝딱이의 역습'을 6월 7일 방송한 후 여름에는 남성 댄스 크루들을 내세운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를 선보인다.

관련 프로그램 연출을 총괄하는 권영찬 책임프로듀서(CP)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제작진 공동인터뷰에서 "매주 화요일 밤을 댄스 프로그램 방영 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댄스 IP(지식재산권)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는 "댄스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이다. '뚝딱이의 역습' 연출자 황성호 PD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몸치 참가자들의 성장을 통해 꼭 잘 추지 않아도 춤을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스맨파'의 최정남·김나연 PD는 "팀 간 경합을 바탕으로 해 팀워크 형성 과정, 개인 퍼포먼스 등 댄서들의 팬덤을 키울 만한 요소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K) 댄스'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들이고 있다. 권 CP는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케이팝 그룹들과 협업한 안무가들이 '스맨파'에 대거 참여한다"며 "해당 IP를 적용한 콘서트 등 방송 이외의 콘텐츠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니카·아이키 등 '스우파' 댄서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점은 일각의 우려를 샀다. 일부 출연자에게 기회가 지나치게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정남 PD는 "댄서들이 나설 방송 무대가 많지 않아 더욱 도드라져 보인 것뿐"이라며 "이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모든 댄서에게도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엠넷 예능프로그램 '비 엠비셔스'가 남성 댄스 멤버를 선발 과정을 다룬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춤을 연습하는 모습이 담긴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엠넷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